

기획조사 06-041

#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 06-

---

##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

## 요 약

- 미국은 최근들어 다자주의에서 탈피, 주요국과 FTA체결 병행 추진중.
  - 2004년 이후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과 FTA를 발효시킨 이후 현재,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 UAE 등과 FTA체결 위한 협상을 진행중임.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06.6월에 미국과 1차 협상을 개시, 금년중 다섯차례 협상예정이며, 태국, 파나마는 각각 6차, 9차례에 걸쳐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왔음.
  
- 미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파나마에 대해서도 최대 수출시장이자, 외국인투자 수행국으로, 이들 3개국 역시 미국과 FTA를 적극 추진중임.
  - 태국은 대미수출 비중 감소 방지, 말레이시아는 전기전자, 섬유류 등 수출증대와 외국인투자유치 통한 산업구조 개선, 파나마는 CAFTA(미-중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상대적 피해 방지를 주목적으로 미국과 FTA를 추진중임.
  
-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입구조를 가지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농산물, 섬유, 의약품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문이 쟁점사항으로 논의중
  - 태국은 농산물 수출국이면서도, 육류, 옥수수 등 민감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할당, 세이프가드조항을 두거나,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중
    - 섬유부문에서는 미측이 세이프가드 조항을 요청했으며, 태국은 Yarn Forward 원산지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의약품 관련, 미측은 태국 특허법 연장을 통한 특허기간 연장과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강하게 요구중.
    - 태국은 미국의 농업수출보조금 폐지를 요구
  - 말레이시아는 협상 초기단계로, 전기.전자, 섬유류 대미수출확대,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국 보호산업인 자동차, 금융분야 개방, 지적재산권보호문제, 쌀 등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

- 미국-파나마 상품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가 주이슈가 되고 있으며, 파나마는 육류, 쌀, 양파 등에 대해 5~10년간 유예기간 부여, 수입쿼터 배정 요구 등의 방식으로 자국산 농산물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서비스, 투자 및 기타분야에서 미국은 국경간거래 허용, 보험분야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태국, 파나마 등은 이에 탄력적 대응중
- 태국은 이미 일부를 제외한 전분야에서 미국과 국경간거래를 허용 중이나, 안보상의 이유로 금융, 통신분야 국경간거래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미국은 미-싱가포르 FTA 수준의 국경간거래 허용을 요구중.
- 미국은 태국에 대해 보험분야에서 지사설립없는 영업허용 등 개방 확대를 요구중이나, 태국은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중이며, 금융시장 개방을 20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중임.
- 파나마는 미국내 일부주의 은행설립 관련 규제를 문제삼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수주를 위해 정부조달분야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들 국가의 연구기관은 미국과의 FTA체결이 수출, GDP, 고용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협상에 임하되 민감품목과 일부 서비스분야에서 자국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임
-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섬유, 제조업체 중심으로 FTA 체결을 환영하고 있으며, 농민, 노동자 그룹은 해당산업 피해 및 급여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의약품 가격 상승우려,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존재.
- 태국은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 FTA 체결,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협상중, 말레이시아도 일본과 FTA체결, 미국, 호주 등과 협상경험 있으며, 이들국가의 미국과 FTA협상은 한-미 FTA 와도 유사성이 있어, 향후 이들국가의 협상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공조 가능성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목 차

|                                  |    |
|----------------------------------|----|
| I. 미국과의 교역·투자 현황 비교 .....        | 1  |
| II. 미국과의 FTA 추진 배경 및 동향 비교 ..... | 7  |
| III. 주요 쟁점사항 비교 .....            | 13 |
| 1. 상품 / 13                       |    |
| 2. 서비스 및 투자 / 25                 |    |
| IV. 현지업체, 국민 반응 및 정부 동향 .....    | 29 |
| V. 시사점 .....                     | 34 |

## I. 미국과의 교역 · 투자 현황 비교

### □ 미국과의 교역 현황

- 200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438억달러로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7위(2.6%), 말레이시아의 대미 수출은 337억달러(2.0%), 태국 199억달러(1.2%), 파나마 3억달러(0.02%)에 달함.
-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한국 277억달러, 말레이시아 105억달러, 태국 72억달러, 파나마 21억달러로 파나마를 제외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은 큰폭의 대미흑자 기록중

#### 【한국 포함 4개국의 대미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

| 대미 수출 |       |           |              | 대미 수입 |         |                 |
|-------|-------|-----------|--------------|-------|---------|-----------------|
| 순위    | 국가명   | 금액        | (미국수입 시장점유율) | 순위    | 금액      | 미국의 전체 수출 대비 비중 |
|       | 총계    | 1,670,940 |              |       | 904,380 |                 |
| 7     | 한국    | 43,779    | 2.62%        | 7     | 27,670  | 3.1%            |
| 11    | 말레이시아 | 33,703    | 2.02%        | 18    | 10,451  | 1.2%            |
| 17    | 태국    | 19,892    | 1.19%        | 23    | 7,233   | 0.8%            |
| 99    | 파나마   | 327       | 0.02%        | 45    | 2,169   | 0.2%            |

자료원: 미 상무부

○ 주요 대미 수출입 품목 구성 비교

-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대미 10대 수출품목 구성을 보면 전자 기기 및 부품품, 기계류, 의류, 고무제품(타이어 등) 등이 공통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파나마의 경우 1차 산품 중심의 대미 수출 품목 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국 포함 4개국의 대미 10대 수출품목】

| 순위 | 한국         | 태국         | 말레이시아      | 파나마      |
|----|------------|------------|------------|----------|
| 1  | 전자기기 및 부품품 | 전자기기 및 부품품 | 전자기기 및 부품품 | 해산물      |
| 2  | 자동차        | 기계류        | 기계류        | 설탕       |
| 3  | 기계류        | 보석류        | 가구         | 보석류      |
| 4  | 석유화학제품     | 의류(편물)     | 고무 및 제품    | 커피       |
| 5  | 철강제품       | 고무 및 제품    | 광학장비       | 과실,건과류   |
| 6  | 플라스틱 제품    | 의류(비편물)    | 석유화학제품     | 육,어류 조제품 |
| 7  | 고무제품       | 육,어류 조제품   | 의류(편물)     | 알루미늄 제품  |
| 8  | 철강         | 해산물        | 목재         | 유리, 안경   |
| 9  | 의류(편물)     | 플라스틱제품     | 동식물성 유지    | 목재       |
| 10 | 유기화합물      | 가구류        | 의류(비편물)    | 채소       |

자료원: 미 상무부  
주: HS코드 2단위 기준

- 한편, 4개국의 대미 10대 수입품목을 보면 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류, 광학,의료장비, 항공기 및 부품 등이 공통적으로 주요 수입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한국 포함 4개국의 대미 10대 수입품목】

| 순위 | 한국        | 태국        | 말레이시아     | 파나마       |
|----|-----------|-----------|-----------|-----------|
| 1  | 전자기기 및 부품 | 전자기기 및 부품 | 전자기기 및 부품 | 석유화학제품    |
| 2  | 기계류       | 기계류       | 기계류       | 기계류       |
| 3  | 광학,의료장비   | 광학,의료장비   | 광학,의료장비   | 전자기기 및 제품 |
| 4  | 유기화합물     | 보석류       | 항공기 및 부품  | 의약품       |
| 5  | 항공기 및 부품  | 항공기 및 부품  | 플라스틱제품    | 항공기 및 부품  |
| 6  | 플라스틱 제품   | 플라스틱제품    | 철강        | 자동차       |
| 7  | 자동차       | 유기화합물     | 과실,건과류    | 광학,의료장비   |
| 8  | 석유화학제품    | 면제품       | 유기화합물     | 곡물류       |
| 9  | 곡물류       | 석유화학제품    | 각종화학제품    | 종이,판재류    |
| 10 | 각종화학제품    | 철강        | 종이, 판재류   | 향료,화장품    |

○ 미국-태국 교역 동향

- 미국은 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2005년 전체 태국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달함.
- 그러나 최근 대미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멕시코 등 경쟁국의 대미수출 시장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과의 FTA체결 추진중.
- 수입의 경우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일본, 중국에 이어 3위 차지.

**【태국의 對미 수출 동향】**

(단위 : USD억)

| 구분      | 2003   | 2004   | 2005   | 증감률      |
|---------|--------|--------|--------|----------|
| 대미 수출   | 136    | 155    | 171    | 10.3     |
| 전체 수출   | 802    | 977    | 1,109  | 14.87    |
| 대미수출 비중 | 16.96% | 15.86% | 15.42% | - 0.44%p |

자료원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enter with cooperation of the Customs Department

○ 미국-말레이시아 교역 동향

-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수출 및 교역 대상국으로 2005년 전체 말레이시아 수출 및 교역의 각각 19.7%, 16.8%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10대 교역국
- 2005년 수출 규모는 말레이시아 전체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전기 전자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6.5% 증가한 28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미 무역흑자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현지 통계기준, 말레이시아 전체수입의 12.9%인 151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중임.

○ 미국-파나마 교역 동향

- 미국은 파나마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면서 파나마 운하 최대 이용국임
- 2005년 기준, 파나마의 대미 수출은 4.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4%, 대미 수입은 1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27%를 차지하는 등 대외 교역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 대미 무역적자 기조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파나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8%로, 미국의 7%와 유사한 수준임.

【미-파나마 주요 교역품목의 관세율 비교】

| Major U.S. Exports <sup>a</sup>   | % of Total                             | Tariff Rate                          | Major U.S. Imports <sup>a</sup>                           | % of Total | NTR Tariff Rate <sup>b</sup> | Free under CBI <sup>c</sup> |
|---|--|--------------------------------------|---|------------|------------------------------|-----------------------------|
| Oil (2710)  | 22.1                                   | 5% <sup>d</sup>                      | Fish/Seafood (0302)                                       | 30.8       | Free                         |                             |
| Aircraft (8802)   | 10.8                                   | 10%                                  | Repaired Goods (9801)                                     | 20.1       | Free                         |                             |
| Machinery<br>- ADP (8473)<br>- computers (8471)<br>- gas turbines   | 9.8<br>(2.0)<br>(1.8)<br>(0.5)         | 3%<br>5%<br>3%                       | Precious Metals (7112)<br>- gold/scrap                    | 6.2        | Free                         |                             |
| Electrical Machinery (8517)   | 8.2                                    | 5%                                   | Oil (2710)<br>- gasoline<br>- crude                       | 10.8       | .525/bbl<br>.105/bbl         |                             |
| Pharmaceuticals (3004)  | 6.6                                    | Free                                 | Sugar (1701)<br>- under quota<br>- over quota (avg. 2003) | 3.0        | 0<br>78%                     |                             |
| Optical/Medical Instruments<br>- cameras (9006)<br>- parts (9009)<br>- medical (9018)   | 3.6<br>(0.8)<br>(0.7)<br>(0.5)         | 10%<br>5%<br>15%<br>10%              | Coffee  | 3.3        | Free                         |                             |
| Cereals<br>- corn (1005)<br>- under quota<br>- over quota<br>- mesline (1001)<br>- rice (1006)<br>- under quota<br>- over quota | 2.8<br>(1.8)<br><br><br>(1.0)<br>(0.2) | <br>3%<br>58%<br>Free<br>15%<br>103% | Fruit<br>- bananas<br>- papaya<br>- watermelon            | 2.6        |                              | Free under CBI and GSP      |
| Other   | 34.2                                   |                                      | Other   | 22.8       |                              |                             |
| Total   | 100%                                   |                                      | Total   | 100%       |                              |                             |

자료원: 미국 상무부, HS코드 4단위 기준

□ 투자 현황

- 2004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누적 규모는 553억달러, 태국 490억달러, 말레이시아 463억달러, 파나마 92억달러에 달함.

【4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비교】 (단위: 백만불)

| 구분    | FDI Inward Stock |        |        | FDI Outward Stock |        |        |
|-------|------------------|--------|--------|-------------------|--------|--------|
|       | 1990             | 2000   | 2004   | 1990              | 2000   | 2004   |
| 한국    | 5,186            | 37,189 | 55,327 | 2,301             | 26,833 | 39,313 |
| 태국    | 8,242            | 29,915 | 48,598 | 418               | 2,203  | 3,393  |
| 말레이시아 | 10,318           | 52,747 | 46,291 | 2,671             | 21,276 | 13,796 |
| 파나마   | 2,198            | 6,775  | 9,217  | 4,188             | 4,004  | 11,391 |

자료원: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누적기준, 철수건은 (-) 반영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는 2004년 연간 기준 한국 37억달러, 태국 5억달러, 파나마 1억달러 수준임.
- 대미 투자는 우리나라가 10억달러, 파나마 14억달러 수준이며, 태국 및 말레이시아의 대미 투자는 1억불 미만으로 미미

【대미 외국인투자 동향 비교】 (단위: 백만불)

| 구분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유치 |         |         |         |         | 대미 투자   |         |        |        |        |
|-------|------------------|---------|---------|---------|---------|---------|---------|--------|--------|--------|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미국 전체 | 142,627          | 124,873 | 134,946 | 119,406 | 229,294 | 314,007 | 159,461 | 71,331 | 56,834 | 95,859 |
| 한국    | 2,338            | 1,206   | 1,681   | 1,030   | 3,768   | 438     | 24      | -270   | -343   | 1,051  |
| 태국    | 722              | 1,286   | 1,433   | -622    | 548     | -75     | 8       | -10    | 50     | -73    |
| 말레이시아 | 1,787            | 17      | -609    | 503     | 미공개     | 300     | 86      | -37    | -49    | 53     |
| 파나마   | 1,328            | 808     | 530     | 261     | 97      | -1,087  | 297     | 1,895  | 2,719  | 1,4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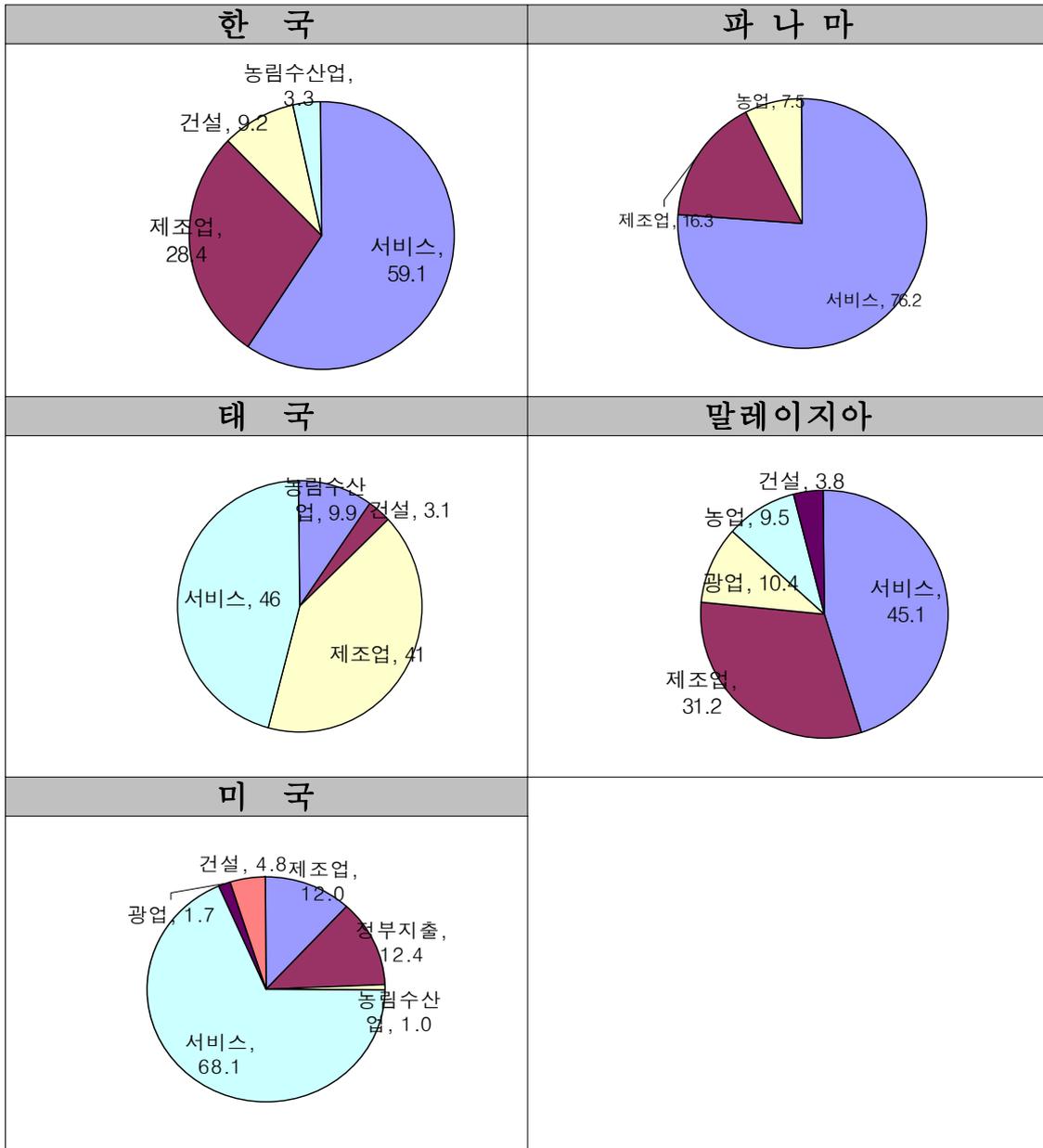
자료원: 미 상무부 경제통계국(BEA)

주: FDI Inflow, Outflow 기준, (-)는 투자회수 의미

- 말레이시아 현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미국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는 14억달러 규모로 말레이시아 전체 외국인 투자유치의 28.8% 차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미국은 1위의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국임.

\* 한국 통계 기준 2005년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규모는 27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유치액 116억달러의 23.3% 차지

**【참고】 3개국 및 한국, 미국의 산업 구조 비교**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 파나마의 경우 여타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서비스가 전체 GDP의 75%이상을 차지.
- 이는 파나마 운하를 활용한 직간접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공산품 분야 무역적자를 서비스 수지 흑자로 보전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음.

## II. 미국과의 FTA 추진 배경 및 동향 비교

### 태 국

#### □ 태국의 FTA 정책

- 태국정부는 수출증대, 고품질 제품 수입확대 통한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산업구조 개선 효과를 내세우며, 다수국과 FTA 체결 추진중
  - 특히, 현재의 탁신 정권은 과거 소국 중심의 FTA체결 대상국 선정에서 탈피,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일본 등과의 FTA체결을 과감히 추진중인데, 이는 동아시아 경제블록화를 통해 세계 3대 지역주의의 한축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 FTA에 찬성하는측은 FTA를 통해 고품질 제품이 저렴하게 수입되어 태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시장확대, 산업특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
- 2006.6월 현재 ASEAN 및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중이며, 미국, 일본, 인도, 바레인, 페루, 파키스탄 등과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인도, 중국, 바레인 등과는 일부품목에 대해 early harvest 성격의 관세인하 실시중.

#### 【태국의 대상국별 FTA 추진 현황】

| 기체결   | 협상중   | 검토중                   |
|---|---|-----------------------|
| 중국-ASEAN('05.1월 발효)<br>호주('05.1월 발효)<br>뉴질랜드('05.7월 발효) | 미국, 일본, 인도,<br>바레인, 페루,<br>파키스탄,<br>한국(한-아세안) | Gulf, BIMSTEC,<br>멕시코 |

자료원 : 태국 상무부

## □ 미국과 FTA 추진 배경

- 미국은 태국입장에서 1위의 수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속 감소중. 따라서 미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중국, 멕시코 등 기업대비 경쟁력 회복한다는 전략임.
- 2002.10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10차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아세안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한 EAI(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계획을 발표했으며, 경제협력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FTA체결이 제시되었음.
- 이를 계기로 태국은 미국과의 FTA 연구를 시작했으며, 2003.10월 양국 정상이 FTA 추진에 최종합의

##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004.6월 1차 협상 개시후,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협상 개최
- 7차 협상은 태국내 정치불안으로 하원 총선일인 2006.10.15일 이후 재개 예정
- 당초 미국측 계획은 2006년 상반기중 협상완료 예정이었으나, 태국의 정국 불안 및 선거 일정으로 7월 현재 협상타결 시점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임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견해차 등 양측간 이견이 작지 않아 7차 협상 재개후에도 완전합의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미-태국 FTA 협상 일정】

| 구분   | 일자            | 장소   |
|------|---------------|------|
| 1차협상 | 2004.6.28~7.2 | 하와이  |
| 2차협상 | 2004.10.11~15 | 하와이  |
| 3차협상 | 2005.4.4~9    | 파타야  |
| 4차협상 | 2005.7.11~15  | 몬타나  |
| 5차협상 | 2005.9.26~30  | 호놀룰루 |
| 6차협상 | 2006.1.9~13   | 치앙마이 |
| 7차협상 | 미정            | -    |

## 말레이시아

### □ 미국과 FTA 추진배경

-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유인정책 적극 추진중
  - 아직까지 연관산업 미발달로 인해 수출증가시 필연적으로 부품, 원자재 수입증가 유발, 경제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점차 증가중임.
- FTA 중심의 지역협정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던 말레이시아도 FTA에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음.
  - '05.12월 일본과의 FTA에 서명한후, 미국, 호주 등과 협상중.
  - 미국과 FTA체결시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과 체결한 국가가 됨으로써 주변경쟁국과의 대미 수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FTA 체결시 기존 주력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산업외에도 신발, 섬유, 가죽 제품 분야에서 관세 철폐 효과와 외국인투자유치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004.5월 양국간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
  - TIFA 체결 목적은 무역, 투자분야에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협의회(Joint Council) 개최를 통해 양국간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FTA체결을 준비
  - 세차례 합동협의회(Joint Council) 개최
    - 1차: 쿠알라룸푸르 (05년 2월), 2차: 워싱턴 DC (05년 5월), 3차: 쿠라룸푸르 (05년 10월)

- 협상스케줄은 한-미 FTA와 개시시점, 협상시기, 잠정 타결 예정 시점이 유사
- '06.3월, 워싱턴 DC에서 말레이시아-미국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후 금년중 5차례에 걸쳐 협상 개최 예정.
- '06.6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1차 협상 개최, '06.7월 워싱턴에서 2차 협상 개최후, 9, 10, 12월에 3~5차 협상 개최 예정
- 협상 원활시 2007년초 협상 최종 타결 예정

## 파 나 마

### □ 파나마의 FTA 정책

- 2006.6월 현재 엘살바도르, 대만과의 FTA 발효중이며, 싱가포르, 칠레와는 협상타결후 협정문 서명 및 국회 비준 절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파나마의 대상국별 FTA 추진 현황】

| 발효중                               | 협상완료     | 협상중 |
|-----------------------------------|----------|-----|
| 엘살바도르('03.4월 발효)<br>대만('04.1월 발효) | 싱가포르, 칠레 | 미국  |

- 멕시코,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는 부분관세협정,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와는 양자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 미국과 FTA 추진 배경

- CAFTA(미국-중미 5개국간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5개국 ) 체결로 인해, 파나마는 중미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국기업 피해방지 위해 미국과 FTA 추진.
  -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지로서의 매력의 감소하면서, 파나마 소재 다국적기업이 타 중미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종종 발생
- 파나마는 미국과 FTA체결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개방확대, 제조업 육성, 농업부문 구조개선 위한 민감품목 유예기간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음.
  - 파나마의 서비스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업 및 농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미 국가중 유일하게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파나마 입장에서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인근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 체결이 중요함.
  - 그러나 양국정부의 여타 현안으로 인해 초기 관심은 줄어든 상태로, 10차협상 일정 수립 자체가 지연되고 있음.

##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CAFTA 추진 초기 당시, 미국은 파나마측에 중미 타국과 함께 미국과의 FTA를 추진할 것을 요구.
  - 파나마측은 미국과의 독자적인 FTA체결을 고집했음.

- 2002년 CAFTA 협상이 활기를 띠면서 미-파나마 FTA에 대한 미국측 관심이 반감, 이에 대해 파나마측은 중미와 통합한 대미 FTA체결 추진을 모색하였음.
- 그러나 중미 타국가들이 파나마의 '무임승차' 식 합류에 반대
- 2003.5월, 미국측 의사 타진 위해 파나마측 사절단 방미
- 2003.9월, 파나마측 요청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파나마와 FTA추진을 미무역대표부에 권고
- 2004. 4월, 1차 협상 개시후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협상 개최
- 파나마운하 확장 등 여타현안, 양측간 쟁점분야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협상 지연 상태
- 당초 2005년중 협상타결 예정이었으나, 2006.6월 현재 10차 협상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타결 불투명함.
- 2006.1월 9차 협상까지 개최 통해 95%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 동식물 검역절차에 대한 합의만 남겨놓은 상태임.
- 그러난 일부 파나마 언론은 파나마 운하 확장 등의 사유로 연내 10차 협상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음.
- 파나마 정부 관료들도 자국 이익 확보 위해 미국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조속한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 Ⅲ. 주요 쟁점사항 비교

#### 1. 상품교역

#### 태 국

#### □ 협상분과 구성

- 양국간 협상 분과는 23개, 분과별 관계부처는 아래와 같음.

#### 【협상 분과 및 관계부처】

| 협상분과        | 관계부처  |
|-------------|---|
| 1. 공산품 시장접근 | Ministry of Finance   |
| 2. 농산물 시장접근 | 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Ministry of Agricultural  |
| 3. 섬유 시장접근  |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
| 4. 무역구제     |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
| 5. 위생검역     | Offic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National Food Standard, Ministry of Agricultural  |
| 6. 기술장벽     |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Ministry of Industry  |
| 7. 원산지 규정   | Customs Department  |
| 8. 통관 절차    | Customs Department  |
| 9. 국경간거래    | Customs Department  |
| 10. 금융서비스   | Bank of Thailand and Ministry of Finance  |
| 11. 투자      | Bank of Thailan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12. 기업인 이동  | -   |
| 13. 노동      | Bank of Thailand and Ministry of Labor  |
| 14. 환경      | Ministry of Environment   |
| 15. 지적재산권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 16. 전자상거래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of Thailand |
| 17. 통신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 18. 정부조달    | The Comptroller General'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
| 19. 경쟁정책    |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
| 20. 과학기술    |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21. 무역협력    |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22. 분쟁해결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23. 투명성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 관세 철폐 · 인하 스케줄

- 태국의 공산품 분야 평균관세율은 13%, 승용차 및 SUV(80%), 모터사이클(60%), 섬유(25~40%) 등이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임.
- 미국의 공산품 분야 평균 관세율은 2~3%, 섬유, 경트럭이 대표적인 고관세 품목임.
- 미국은 최근 개최된 6차협상에서 태국산 수입품 10,500개중 8,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수입규모면에서 128억달러, 태국으로부터 수입의 74%에 해당.
- 전기.전자, 나무, 고무, 유리 및 세라믹, 플라스틱, 보석, 식품, 철강 등이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에 포함
- 태국은 금액기준 미국으로부터 수입의 71%에 해당하는 품목(5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제안
- 민감품목인 육류, 유제품, 옥수수, 감자, 티, 커피, 양과 등에 대해서는 관세 즉시철폐 대신, 10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쿼터 등 보호조치 마련을 요구중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태국측 관세 인하 계획(안)】**

| 품목명                                      | HS Code | 일반관세           | 관세인하(안)        |
|--|---------|----------------|----------------|
| <b>1. Rice and products</b>              |         |                |                |
| - Rice                                   | 1006    | Baht 2.75 / kg | 0% in 2006     |
| - Rice flour                             | 1102.30 | 30%            | 0% in 2006     |
| - Noodles                                | 1902.19 | 30%            | 0% in 2006     |
| - Crispy bread                           | 1905.10 | 30%            | 0% in 2006     |
| - Pastry                                 | 1905.90 | 30%            | 0% in 2010     |
| <b>2. Livestock</b>                      |         |                |                |
| - Live Bovine animals                    | 0102    | 0.5%           | 0% immediately |
| - Live Bovine animals, fresh and chilled | 0201    | 50%            | 0% in 2010     |
| - Live Bovine animals, frozen            | 0202    | 50%            | 0% in 2010     |
| - Edible offal of bovine animals         | 0206    | 30%            | 0% in 2010     |
| - Prepared or preserved meat             | 1602.50 | 30%            | 0% in 2006     |

| 품목명                                   | HS Code   | 일반관세            | 관세인하(안)        |
|---------------------------------------|-----------|-----------------|----------------|
| <b>3. Milk and products</b>           |           |                 |                |
| - Skim-Powdered milk (0% fat)         | 0402.10   | 5%              | 0% in 2010     |
| - Skim milk                           | 0404      | 5, 30%          | 0% in 2010     |
| - Cheese                              | 0406      | 30%             | 0% in 2010     |
| <b>4. Marble, Granite</b>             |           |                 |                |
| - Marble                              | 2515      | 8.75%           | 0% in 2010     |
| - Granite                             | 2516      | 8.75, 12.5, 20% | 0% in 2010     |
| - Products made by stone              | 6802      | 10, 30%         | 0% in 2010     |
| <b>5. Chemicals</b>                   |           |                 |                |
| - Inorganic Chemistry                 | 2801-2851 | 0, 5%           | 0% in 2010     |
| - Organic Chemistry                   | 2901-2942 | 0, 5%           | 0% in 2010     |
| - Fertilizer                          | 3101-3105 | 0, 5%           | 0% in 2010     |
| - Varnish paints and others           | 3208-3215 | 5, 10, 20%      | 0% after 2010  |
| - Substance for dye and bleach        | 3201-3207 | 0, 5%           | 0% after 2010  |
| - Miscellaneous                       | 38013825  | 0-20%           | 0% in 2010     |
| - Insecticide substance               | 3808      | 20%             | 0% in 2010     |
| <b>6. Timber and products</b>         |           |                 |                |
| - Wood and timber                     | 4401-4407 | 1, 5%           | 0% immediately |
| - Wooden board                        | 4408-4409 | 12.5%           | 0% in 2010     |
| - Wooden fiber board                  | 4411      | 12.5%           | 0% in 2010     |
| - Wooden tableware, kitchenware       | 4419      | 30%             | 0% immediately |
| <b>7. Silk yarn and silk products</b> |           |                 |                |
| - Raw silk                            | 5002      | 10%             | 0% after 2010  |
| - Silk yarn                           | 5003-5006 | 5%              | 0% in 2010     |
| - Silk                                | 5007      | 17.5%           | 0% in 2010     |
|                                       | 6206.10   | 60%             | 0% in 2010     |
| - Silk products                       | 6213.10   |                 |                |
|                                       | 6214.10   |                 |                |
|                                       | 6215.10   |                 |                |
| <b>8. Textiles</b>                    |           |                 |                |
|                                       | 5111-5113 | 7.5-17.5%       | 0% in 2006     |
|                                       | 5208-5212 |                 |                |
| - Woven fabric                        | 5310-5311 |                 |                |
|                                       | 5407-5108 |                 |                |
|                                       | 5512-5516 |                 |                |
|                                       | 6001-6006 |                 |                |
|                                       | 5204-5207 | 5%              | 0% in 2006     |
| - Cotton thread and synthetic thread  | 5401-5403 |                 |                |
|                                       | 5508-5511 |                 |                |
|                                       | 5701-5705 |                 |                |

| 품목명   | HS Code                             | 일반관세        | 관세인하(안)        |
|---|-------------------------------------|-------------|----------------|
| - Textile and coverings                                     | 5904-5905<br>6301-6304<br>5404-5405 | 12.5, 30%   | 0% in 2006     |
| - Synthetic thread  | 5504-5507<br>5804                   | 1, 5%       | 0% in 2006     |
| - Scarf   | 6117<br>6214-6215                   | 5-60%       | 0% in 2006     |
| - Knitted fabric  | 5804                                | 12.5%       | 0% in 2006     |
| - Embroidery fabric   | 5810                                | 15%         | 0% in 2006     |
| - Fishing net   | 5608                                | 15%         | 0% in 2006     |
| - Dress patterns  | 6307                                | 5-30%       | 0% in 2006     |
| <b>9. Ceramics</b>  |                                     |             |                |
| - Floor tiles   | 6901-6904                           | 10%         | 0% in 2006     |
| - Other ceramic products                                    | 6909                                | 5, 10%      | 0% in 2006     |
| <b>10. Glass and mirror</b>                                 |                                     |             |                |
| - Scrap of glass  | 7001                                | 5, 17.5%    | 0% immediately |
| - Cast glass  | 7003                                | 5, 17.5%    | 0% immediately |
| - Glass container   | 7010                                | 30, 35%     | 0% in 2010     |
| - Glassware of a kind used for table                        | 7013                                | 30, 35%     | 0% in 2010     |
| <b>11. Electric appliance</b>                               |                                     |             |                |
| - Compressor  | 8414.30                             | 15%         | 0% in 2006     |
| - Air conditioner   | 8415                                | 30%         | 0% in 2010     |
| - Refrigerator  | 8418                                | 30%         | 0% in 2006     |
| - Video   | 8521                                | 20%         | 0% in 2010     |
| -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 8527                                | 20%         | 0% in 2010     |
| - Color television  | 8528                                | 20%         | 0% in 2006     |
| -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 8537                                | 15%         | 0% in 2006     |
| - Thermionic  | 8540.11                             | exemption   | 0% in 2006     |
| <b>12. Auto and parts</b>                                   |                                     |             |                |
| - Personal car  | 8703                                | 10, 60, 80% | 0% in 2010     |
| - Truck, pick-up car  | 8704                                | 40, 60%     | 0% in 2010     |
| - Motorcycle  | 8711                                | 60%         | 0% in 2010     |
| - Auto parts  | 8708                                | 30, 35, 42% | 0% in 2006     |
| - Motorcycle parts  | 8714                                | 10, 30, 40% | 0% in 2010     |

자료원: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2004 )  
Business Thai Newspaper

주1: 태국 관세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기준

주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HS code 84-87) 태-미 양측 민간에서는 전품목 관세인하 요구중이며, 상기표에서 내용은 이중 일부 품목에 대한 계획임.

주3 : 관세인하계획은 2004년 협상 당시 작성되었던 것임.

## □ 섬유(textiles)

- 태국은 미국 섬유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위해 섬유류 전품목에 대해 미측의 수입관세 즉시철폐를 요구중.
  - 현재 태국의 섬유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은 2.3% 수준으로 중국 등에 비해 크게 저조.
- 양측은 2차 협상을 통해 섬유부문은 섬유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을 준용, 협정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
- 3차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적용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미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국에게도 섬유부문 세이프가드 조항을 요청하고 있음.
- 원산지규정 (Yarn Forward 인정 여부)
  - 미측은 태국에 대해서도 섬유부문 Yarn Forward (원사규정, 원사 생산지에 따라 섬유원산지 결정)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태국측은 상당수 원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 원사규정을 전면 거부하기 보다는 태국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더라도 품질이 낮은 100개 품목을 미국측에 제시하고, 이들 공급부족리스트(Short of Supply List)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규정 적용을 제외 또는 완화시켜 달라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중.
  - 미국측은 이에 대해 민간측과 협의후 결정한다는 반응임.

## □ 의약품

- 현재 미국은 TRIP plus외에도 아래사항을 내세우며, 태국의 특허법 수정 요구중
  - 특허출원 정보의 보호
  - 의약품 특허기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 (특허권 20년 + 5년간의 등록 보호)
  - 의약품 등록전 태국 식약청의 특허 체크 의무화
  - 보건 관련, 비상사태 발생시 제네릭약품 생산 또는 수입 위한 라이선싱 의무화
- 미국측은 제네릭 약품 등에 대해 지적권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태국 정부는 다수 빈곤층이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태임.
  - 일례로 현재 태국 특허법에 따르면, 치료관련 특허는 보호 대상이 아니며, 이는 치료 특허 인정시 소득수준이 낮은 태국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 조치임.
- \* 치료관련 특허란 환자 안전을 위한 수증 수술 기술 등 의료행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의미
- 한미간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가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음.

## □ 농산물

- 한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분야는 양국간 FTA에서도 최대 현안중 하나임.
- 태국 입장에서 미국은 2위의 농산물 수출 대상국이며, 미국 입장에서 태국은 4위의 수입 대상국임. 이로 인해 미국보다도 태국입장에서 미국 농산물 시장은 큰 의미를 가짐.
- 한편, 미국은 태국입장에서 1위의 농산물 수입 대상국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태국은 16위의 수출대상국에 불과함.
- 태국개발연구원(TDRI: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이 2003.12월 발표한 'Impact of Thailand-U.S. FTA Agreement'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양국간 농산물 거래량은 12억달러에 달하며, 미국이 3.8억달러의 적자 기록한바 있음.
- 태국의 대미 주요 수출 농수산물은 가공해산물, 냉동새우, 고무, 쌀, 설탕, 과일, 야채 등이며, 미국의 주요 대태국 수출 농수산물은 밀, 면화, 콩 등임.
- 한편, 양국간 협상에서 농산물이 공산품에 비해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양국 모두 공산품 대비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 편. 태국의 농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24%, 미국은 7%임 (최혜국 관세율 기준). 20%이상 고관세 농산물은 태국이 전체 농산물의 43%, 미국은 1.3%.
- 특히, 육류, 과일, 야채류의 태국 수입관세율은 40~60%에 달함. 이와 함께 소비세, 허가세, 라벨링, 표준인증 등 비관세 장벽이 존재
- 미국은 관세인하를 강하게 요구, 태국은 미국의 수출보조금 폐지와 일부 고관세 품목(파인애플 29%, 생선 및 생선가공품 26% 등)의 관세 인하, 설탕교역자유화(태국은 세계 3위 설탕 생산국)를 요구중

- 미국은 태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품목중 65%에 해당하는 1300개 품목에 대해 FTA체결 후 5년내 관세 철폐를 제안한 상태
- 반면, 태국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목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 철폐를 제안
  - 육류, 옥수수, 감자, 양파 등의 시장개방은 10~20년 후로 제안
  - 태국은 쌀, 채소, 생과일 및 가공과일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태국은 미국의 위생검역제도를 자국산 농산물 수출의 주요 장애 요소로 인식.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미국에 대해 검역 마찰 발생시 이의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 요구중.
  - 양측은 연락창구로 시작, 상설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태국은 상설기구의 조속한 설치 요구중.
  - 태국은 자국산 6종류 과일과 닭고기 수출 증대위해, 미국 검역제도 신속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은 태국에 대해 광우병 우려가 없는 쇠고기 및 닭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요구

#### □ 원산지 규정

- 미국은 타국과의 FTA협상시와 마찬가지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규정을 적용할것을 제안. 태국은 자국의 수출 유망품목인 신발, 도기류, 보석, 안경 등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마련을 요구
  - 적용 품목 : 공산품 및 농산물
  - 섬유관련 원산지 규정 적용은 섬유 분과에서 별도 협의 예정
- 한편, 원산지 증명 방법으로 미국은 수출업자가 증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태국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C/O(Certificate of Origin) 이용을 요구

- 원산지 판정시 역내산 비율 산정 관련, 태국은 미국측 초안 검토후, 산출 방식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 상태임.
- 특히, 자동차부품의 순원가 산정 방식에 대한 태국 정부 및 민간측 이해 제고 위해 미국 대표를 보내 명확한 설명을 해줄것을 요구
- 태국측 원산지 적용원칙은 아직 미국측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측의 대응정도에 따라, 미국이 엄격한 규정 적용시 태국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임.
- 태국은 '06.10월 농산물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안을 미국에 전달 예정
- 개성공단 역내산 인정(역외가공 인정 등) 관련 유사사례는 없음.

## 말레이시아

### □ 주요 논의 동향

-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정보 공개정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정도가 낮고, 종교적 특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대외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미-말레이시아 FTA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아직 협상 초기단계로 주요분야별 논의 동향 파악이 어려운 상태임.
- 한-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06.6.12~16일 개최된 1차 협상에서는 양국간 입장파악 및 이해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차 협상부터 양허안 및 유예품목 등 개방 방식에 대한 협의 본격화예정.
-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발, 섬유류, 도자기 식기류 분야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농산물, 금융시장 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도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 말레이시아측 관심 분야
  - 전기.전자 제품 및 섬유.의류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
  - 기술 장벽(위생검역 포함)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 교육, 의료, 관광 분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 말레이시아측 우려 사항
  - 자국 보호 산업인 자동차, 금융 시장에 대한 미국측 개방 압력
  -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

## 파나마

### □ 상품무역

- 공산품 및 농산물의 시장개방 논의는 CAFTA 협정문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음
  - 파나마측에서는 CAFTA 협정문을 토대로 일부조항을 수정 제안했으며, 미국의 경우 자국이 체결한 FTA협정문을 포괄적으로 참조, 협상에 임하고 있음.
- 공산품의 경우, 미국측은 전체 품목의 89%에 대해 즉각적인 무관세화를 요구한 반면, 파나마는 전체 품목의 55%에 대해서만 즉시 관세 철폐 제안
- 미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해 파나마에서 부과되는 부가세(ITBM, 통상 5%) 면제를 요청했으나, 파나마측은 동 부가세가 자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중임.

## □ 농축산물

- 미-파나마 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파나마측은 자체 생산 농산물 시장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반면, 미국측은 9차례 협상 내내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 주요 논의사항은 미국에서 검역 승인 받은 미국산 육류에 대해 파나마측 별도 검사 없이 파나마로의 직수출 가능여부, 미국산 설탕 수입쿼터,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 등임.
  - 이에 대해 파나마 농업계 반발, 농업개발부 장관 사퇴
  - 9차 협상 이후, 파나마 정부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미국의 검역제도에 대해 실사를 벌여, 검역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직수입 가능함을 표명하였으나, 파나마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파나마측 민감품목은 쌀, 돼지고기, 닭고기를 비롯 쇠고기, 옥수수, 감자, 양파, 식용류, 콩, 채소 등이며, 가격경쟁력 열위 등의 사유로 미국산 제품 수입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들임.
  - 9차례 협상 과정에서 쌀, 닭고기, 돼지고기, 커피, 감자, 양파, 식용유, 설탕에 대한 관세인하 계획 지속 논의
  - 1차 협상 당시 제시된 양측의 농산물 개방 조건

| 미국측 안   | 파나마측 안  |
|---|---|
| 관세 즉시 철폐, 4년 또는 8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및 전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실시 | 관세 즉시 철폐, 5년 또는 10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및 적용 예외 품목 지정<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예외 희망품목: 닭고기, 쌀, 돼지고기, 설탕, 양파, 감자, 커피 등</li> </ul> |

- 1차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FTA의 대상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
- 그러나 파나마 농업계의 반발로 파나마측은 1차 협상에서 합의된 품목별 유예기간의 재합의를 요구
- 파나마는 유제품에 대한 시장개방 연기 요청중
  - 미국은 파나마에 대해 자국산 3,900톤의 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배정을 요청한 반면, 파나마산 유제품에 대해서는 4,205톤의 수입쿼터를 배정
- 미국의 설탕 쿼터 제도는 'first come, first served' 방식으로 이루어져 파나마 설탕 제조업체에 불리하다는 입장임.
  - 설탕은 파나마의 대미 농산물 수출의 41%를 차지하며, 현재 3만 500톤의 수입쿼터를 20만톤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중
- 파나마측 민감 품목인 닭고기, 쌀, 돼지고기에 대해 미국은 페루와의 FTA 협상과 동일한 4년 유예기간 부여를 제시하고 있으나, 파나마측은 최소 7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 원산지 규정

-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제품은 콜론에서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기존의 원산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합의 완료
  -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제품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고, 역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는 취지임.
  - 콜론에서의 제품 가공여부는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관리 예정

## 2. 서비스 및 투자

### 태 국

- 태국은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투자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미국에 대해 서비스공급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과 필요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가능하도록 지속 요구중임.

#### □ 국경간 거래 허용 문제

- 태국은 오래전부터 금융, 통신, 토지소유, 국내운송, 증권예탁을 제외한 전분야에서 미국과 국경간거래를 허용중임.
  - 태국은 향후에도 금융, 통신 분야는 안보차원에서 국경간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 미국은 미-싱가포르간 FTA수준의 서비스부문 국경간거래 허용을 요구중

#### □ 규제(투자, 투자 등) 철폐

- 투자개방 분야에 대해 미국은 미-싱가포르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Negative List 방식, 태국은 Positive List 방식의 개방을 요구.
- 미국은 태국에 대해 외국인지분제한 철폐 등 투자규제 폐지 요구
  - 특히, 보험사 및 보험회사 지사의 자유로운 설립,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영업 허용 등 보험분야 개방확대 요구중
  - 태국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 태국은 금융시장개방을 20년간 유예해 달라는 입장 고수
  - 반면 미국은 증권분야 투자자문 서비스허용, Mutual Fund 조성 허용 요구중

- 통신 분야의 경우, 미국측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 태국 통신 위원회 (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of Thailand)는 민간 대상 공청회 개최후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임
- 기타사항에 대한 국내규제 폐지 요구는 상호간 없는 상태

## □ 지적재산권

- 미국은 태국에 대해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보호장치 마련을 지속 요구중.
  - 관련 법집행 강화, 온라인서비스 기업의 책임 강화, 불법 CD 제조·유통 금지, 위성신호 보호를 위한 특허, 의약품·씨앗 등 생물체 특허 등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지재권 보호 장치 마련 요구중.
- 태국측은 상호간 지재권보호 시스템 마련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이견, 현재 수준의 지재권보호 제도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아래 4가지 사항을 요구.
  - 현지 지적재산권의 보호, 상대국 기업(개인)의 아이디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발생한 이익을 공유
  - 역외국의 FTA 오용 방지 위한 썬크, 쌀, 주류 등의 산지표시 보호 확대
  - 지재권 분야 협력, 양국기업의 지재권등록 편의 제공 등
  -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인정
- 상표권, 지역특산품 관련 양측 견해차가 크며, 특히 의약품 관련 특허 보호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완전히 달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과학기술 협력

- 태국측의 요청으로 5대분야: 생명공학, 나노기술, 대체에너지, 우주항공, 재난방재 IT 분야에서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 위한 조항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 □ 전자상거래

- 미국은 자국경제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을 들어, 해당분야 규제 철폐, 디지털 제품과 기존 유형 제품의 동일 취급을 주장하고 있음.
- 태국은 관련법 요약본을 미국에 제출하고, 디지털 제품의 정의, 원산지규정, 관세 등에 대해 미국측에 추가설명을 요구한 상태임.
-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WTO의 '문화적 예외조항' 이 많이 적용될 전망이며, 태국은 미국에 대해 관련 경험 및 기술 공유를 요구하고 있음.

## □ 비자면제

- 태국측 요구로 '기업인 일시 입국시 비자면제' 건이 협상의제에 포함되었으나, 미국 협상단은 동건이 이민국 소관업무로 협상단 권한밖이라며, 이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

## □ 경제협력

- 이밖에 협력분과, 정부조달분과, 노동.환경분과 등에서도 규제 관련 사항뿐 아니라 양국간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서비스통계시스템 공동개발, 미국 정부조달 제도 설명, 경제분야 지식공유, 태국기업 및 공무원에 대한 훈련제공, 노동, 환경분야 미국측의 교육제공 등

## 파나마

### □ 서비스

- 서비스분야 협상은 금융, 물류, 통신,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파나마는 서비스가 전체 GDP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중심 국가로,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서비스 분야 개방도도 높은 편임.
  - 미국은 파나마에 대해 전문직 서비스 개방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 분야는 상호 개방 확대 요구중
  - 보험 등 금융분야 개방 확대는 미국측 관심사항으로, 9차례 협상을 통해 부동산분야 지분제한 철폐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파나마측은 미국내 일부주의 금융 규제를 지적하면서 파나마계 은행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협상단은 이것이 주정부 소관사항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소매업'에 대해 2011.1월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 완료
  - 파나마는 현재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첫투자액이 3백만불 이상으로 통상산업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진출을 허용 예정임.
  - '소매업'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가 이루어지는 멀티서비스를 의미하며, 해당분야 개방을 위해 미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투자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정부조달

- 파나마 운하의 대규모 확장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파나마측 정부 조달시장 참여 확대는 미국측의 주된 관심사항중 하나임.
- 미국측은 파나마의 정부조달 입찰 투명성 확보,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요구중.
- 이에 대해 파나마측은 파나마운하관리당국이 효과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보유한 합리적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현재 조달시스템 유지와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 중임.

## IV. 현지 업계, 국민반응 및 정부대응 동향

### 태 국

## □ 영향 예측

- 태국개발연구원(TDRI: Thailand Development & Research Institute)은 미-태국 FTA 체결로 양국의 사회적 후생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태국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각각 3.4%, 4.7% 증가하고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 섬유,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태국의 실질 GDP가 1.34%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는 향후 10년간 태국 GDP가 500억달러 정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

- 태국경제사회개발원(NESDB: National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Board)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국간 FTA체결에 따라 매년 7.8만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고, 대미수출은 매년 3.4% 증가, 향후 10년간 45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미-태국 FTA는 태국의 대미 수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
- 미국의 경우, 부시행정부는 미-태국 FTA로 인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설탕생산업체는 태국으로부터의 설탕수입 증가를 우려, FTA체결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도 미국의 소형트럭 관세율(25%)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민간 전망

【태국측의 분야별 FTA영향 전망】

| 분야       | 긍정적 영향            | 비고                     |
|----------|-------------------|------------------------|
| 농업       | 닭, 새우 등 해산물 수출 증가 | 사료용 야채 생산 농가 등에 영향     |
| 의약품      | -                 | 특히 강화시 의약품 가격 인상 가능성   |
| 채소류      | -                 | 미국산 채소류 가격이 30-400% 높음 |
| 금융       | -                 | 은행, 보험, 증권 부문 영향       |
| 서비스      | -                 | 미국에 비해 비효율적인 시장 상황     |
| 투자       | -                 | 공공서비스 가격경쟁 격화 전망       |
| 자동차 및 부품 | 부품부문 경쟁력제고        | -                      |
| 섬유       | 1단계수준의 관세인하       | -                      |
| 보석류      | 협상결과에 따라 상이       | -                      |

자료원 : Biodiversity and Community Rights Action Thailand

- 태국 정부의 협상 기본 방침은 전분야에서 협상에 임하되, 민감 품목과 일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업체들이 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임.
  - 태국은 노동·환경, 지적재산권, 금융서비스 등 분야 경쟁력이 미국에 뒤져 있어, 해당분야의 협상에 고심중임.
  - 태국개발연구원(TDRI: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쏘키아트 원장은 '태국정부가 피해 우려분야에 대한 부정적 효과 최소화 노력하다 보니,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어적 입장에 놓였다.'며, 일단 전분야에서 협상에 임하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미-태국간 FTA 협상은 지재권보호 문제 등에서 이견이 커 협상 타결까지는 1~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미국과 FTA 체결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미국 및 태국 일부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미국과의 협상과정 공개 요구가 있으며, 지재권의 경우 WTO에서 규정된 20년보다 긴 25년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 존재
  
- 정부측은 협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 참여 유도노력 전개중
  - FTA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협상과정, 협상결과, 주요 이슈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 양과,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품목 시장개방에 대비 2.7억달러의 예산을 농가 품목변경에 지원 예정
  
- 주요 사안별 정부, 업계,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공감대 형성 및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 지난 2월에는 태국 은행연합, 산업연합, 상공회의소 등이 공동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 제공 및 협상전략 수립
  - 태국 상무장관은 협상단에게 방송을 통해 협상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지시한바 있음.

## 말레이시아

### □ 업계 반응

- 이해관계에 따라 업종별 반응 상이
  - 섬유업계 등 제조업분야에서 환영의사를 표명한 반면 소비자, 농민, 노동자 그룹은 FTA 영향 정밀분석 및 정부 대책 요구
  - 소비자 그룹은 FTA 협상에 따른 특허권 보호 강화시 의약품(특히 Generic 약품) 가격 상승 우려
- 농업계의 반발이 크며 특히 쌀, 콩, 육류(닭과 쇠고기) 분야에서 피해 예상.
  - 말레이시아는 현재 쌀에 대해 4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정책으로 쌀 자급율 90%를 목표로하고 있으나, 시장개방시 미국쌀의 대량 수입 우려
- 노동계는 시장개방시, 경쟁력이 낮은 말레이시아 기업의 수익률 악화로 인한 실업증가, 급여하락 우려, 미국과의 FTA체결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국민, 언론의 관심이 크지 않아 미국과의 FTA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고 있음.

## 파 나 마

### □ 현지업계 및 국민 반응

- 2006.2월 Dichter & Neira사에서 실시한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파나마 현지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2%가 찬성, 40%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 찬성측 의견은 주로 기업인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2004.9월 이후 추진한 협상을 이제와서 멈추면 손해라는 주장
  - 3백만명의 파나마 시장과 3억명의 미국 시장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것으로, 미국과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발표후, 파나마 경영자협회는 미-파나마 FTA에 대한 정부 관심이 감소될 것에 우려 표명.
  - 다국적기업, 서비스업계도 미국과의 FTA가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 메가포트 건설 프로젝트 등 대형 이슈로 인해 지연되는 것에 우려 표명.
  
- 그러나 FTA 체결 통한 경기 활성화가 불러올 수 있는 고용 창출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며, 9.6%에 달하는 파나마 실업률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농업계는 FTA 체결로 인한 자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하락 및 시장상실 우려
  
-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후 분야별 업계 대표와 정기 회의 개최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 언론홍보 등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자국 이익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을 강조
  - 통상산업부 홈페이지에 미-파나마 FTA 관련 섹션을 개설, 관련 정보 공유중

## V. 시사점

- 지역협정 체결 가속화 추세에 따라 태국, 싱가포르를 물론,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던 말레이시아도 2005년 이후 미국, 일본, 호주 등과 FTA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FTA체결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20대 수입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3개국, 추진중인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 5개국이며, EU가입국이 5개국으로 이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중국, 일본, 대만, 사우디, 나이지리아, 러시아, 인도 뿐임.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과 FTA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우디, 나이지리아의 대미 수출품이 대부분 원유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 대미 수출국중 FTA와 관련 없는 국가는 일본과 인도 정도임. 이중 인도는 농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52%), 일본은 여당인 자민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농촌임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FTA 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임.

\*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0개국 (2005년 기준)

-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캐나다(1), 멕시코(3), 이스라엘(19)
- 추진 5개국: 한국(7), 말레이시아 (11), 태국(17), 베네주엘라(9), 브라질(15)
- EU 회원국 5개 : 독일(5), 영국(6), 프랑스(10), 이탈리아(11), 아일랜드(13)
- 기타: 중국(2), 일본(4), 대만(8), 사우디아라비아(14), 나이지리아(16), 인도(18), 러시아(20)

- 현재 미국과 FTA협상중인 태국, 말레이시아, 파나마 등은 중국제품 약진에 따른 대미 수출비중 축소, 외국인투자유치 및 산업구조 개선, 타지역협정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우려되는 피해 방지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목적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중임.
- 미국과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도 농산물 민감품목의 유예기간 확보, 섬유세이프가드 허용 여부, 섬유원산지규정 완화, 의약품 특허강화, 국경간거래 허용문제 등 한-미 FTA 쟁점사항과 상당부분이 유사성을 띄고 있음.

- 일례로, 미국은 섬유분야에서 원사기준(Yarn Forward) 원산지규정 적용을 요구했는데, 태국정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이의 완화를 요청.  
태국정부는 원사규정을 전면 거부하는 대신 자국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자국산의 품질이 현저히 낮은 10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협상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음.
- 태국의 경우 23개 분과를 구성, 전분야에서 협상을 펼치되, 자국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 특히 태국은 지금까지 6차례 협상을 개최, 관련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06.6월 협상 개시, 금년중 5차례 협상 예정인바, 이들 국가와 미국의 협상과정, 논의 사항, 대응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기획조사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06-001 |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 2006.1 |
| 06-002 |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 2006.1 |
| 06-003 |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 2006.1 |
| 06-004 |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 2006.1 |
| 06-005 |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2006.2 |
| 06-006 |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 2006.2 |
| 06-007 |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 2006.2 |
| 06-008 |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 2006.2 |
| 06-009 |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 2006.2 |
| 06-010 |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 2006.3 |
| 06-011 |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 2006.3 |
| 06-012 |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 2006.3 |
| 06-013 |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 2006.3 |
| 06-014 |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 2006.4 |
| 06-015 |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 2006.4 |
| 06-016 |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 2006.4 |
| 06-017 |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 2006.4 |
| 06-018 |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 2006.4 |
| 06-019 |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 2006.4 |
| 06-020 |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 2006.4 |
| 06-021 |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 2006.4 |
| 06-022 |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 2006.4 |
| 06-023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 2006.5 |
| 06-024 |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 2006.5 |
| 06-025 |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 2006.5 |
| 06-026 |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 2006.5 |
| 06-027 |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 2006.5 |
| 06-028 |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 2006.5 |
| 06-029 |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 2006.5 |
| 06-030 |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 2006.6 |
| 06-031 |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 2006.6 |
| 06-032 |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 2006.6 |
| 06-033 |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 2006.6 |

|        |                                   |        |
|--------|-----------------------------------|--------|
| 06-034 |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 2006.6 |
| 06-035 |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 2006.6 |
| 06-036 |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 2006.6 |
| 06-037 |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2006.6 |
| 06-038 |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 2006.6 |
| 06-039 | 중국 내수시장 공략, 신4P 전략으로              | 2006.6 |
| 06-040 | 한-EU FTA 추진 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사례 | 2006.7 |
| 06-041 |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 2006.7 |

## □ 무공자료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06-001 |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2006.1 |
| 06-002 |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 2006.1 |
| 06-003 |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 2006.1 |
| 06-004 |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 2006.1 |
| 06-005 |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2006.2 |
| 06-006 |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 2006.2 |
| 06-007 |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 2006.3 |
| 06-008 |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 2006.3 |
| 06-009 |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 2006.3 |
| 06-010 |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2006.6 |
| 06-011 |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 2006.6 |
| 06-012 |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 2006.6 |
| 06-013 |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 2006.6 |
| 06-014 |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 2006.6 |
| 06-015 | 중국 중서부지역 환경시장을 일군다                                 | 2006.6 |
| 06-016 |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 2006.7 |
| 06-017 |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 2006.7 |
| 06-018 |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 2006.7 |
| 06-019 | 2006 해외투자백서  | 2006.7 |
| 06-020 | 중국투자 A to Z  | 2006.7 |
| 06-021 |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 2006.7 |

## □ 산업리포트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06-001 |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 2006.4 |
| 06-002 |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 2006.6 |

|        |                            |        |
|--------|----------------------------|--------|
| 06-003 |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2006.6 |
| 06-004 |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 2006.6 |
| 06-005 |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 2006.6 |
| 06-006 |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 2006.6 |
| 06-007 |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 2006.6 |
| 06-008 |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 2006.6 |
| 06-009 |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 2006.6 |

## □ 설명회자료

| 번호     | 제목                       | 발간일자   |
|--------|--------------------------|--------|
| 06-001 |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 2006.6 |

작성자

- |             |        |
|-------------|--------|
| ◆ 통상전략팀     | 임성주 과장 |
| ◆ 파나마무역관    | 손영인 과장 |
| ◆ 방콕무역관     | 이성훈 과장 |
|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나범근 과장 |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